

web designer



heoeunju

<https://eun08.github.io/portfolio/>

ABOUT

허은주

1982.01.02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북3길

010 9393 5676

blossom0102@naver.com

SKILLS



Ai



Ps



Xd



Pr



</>



INTERESTS



EDUCATION



2005.02

인제대학교 졸업
멀티미디어 디자인 학사

2000.02

마산여자고등학교 졸업



2020.09 ~ 2021.02

부산IT교육센터
프론트엔드 디자인
(웹디자인&웹퍼블리싱)

LICENSE



2009.08

정보처리기사

2007.03

자동차운전면허증 (2종보통)

2007.02

JLPT 2급

WORK EXPERIENCE



2012.04 ~ 2014.04

(주)이마트 마산점
POP 담당

2009.03 ~ 2010.06

한국기원 바둑협회창원지부
행정, 굿즈디자인, 광고

2007.11 ~ 2008.05

(주)이랜드월드 이랜드주니어
사무보조, 쇼핑몰 관리

2007.03

대형웍스(주)
인터넷 홈페이지 보수관리팀 그래픽작업

2006.04

경남도민일보
인터넷팀 홈페이지 그래픽작업

ACTIVITIES



2007.08

제11회 프레스펜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공모전
장려상

2006.04

제1회 리트머스 그래픽 공모전
레인보우 그래픽 부문 2등



성장과정

어릴 때부터 학교 대표로 대회에 나가던 미술 지망생이었습니다. 미술과 관련되고 보다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정이 없을까 찾던 중 디자인학부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멀티미디어 디자인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그래픽 툴과 영상 툴을 익히고 일러스트, 타이포그래피 등 디지털 콘텐츠의 다양한 분야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림과 글자가 적절한 배치로 아름다운 구성을 이루는 것은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왔으며 저의 디자이너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격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성격이었으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O형이냐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하면서 밝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편입니다. 특히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상품을 설명하고, 불만을 거는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서 이해하고 응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소극적일 수 있는 순간에 조금의 용기로 즐거움이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음먹은 것에는 행동파

일본드라마를 좋아해서 독학으로 JLPT 2급을 따고 드라마 영상을 편집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디자인의 안목을 높이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그해 대부분의 전시회를 관람하고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부산국제영화제 생방송 영상을 보고 동참하고 싶은 생각으로 밤새 줄 서서 표를 구하는 등 마음먹은 것에는 행동파입니다.

말하는 것보단 듣는 것을, 주장을 관철하기보다는 갈등을 해소하는 쪽을 선호합니다.

대학교 영상 수업 때 3명이 함께 뮤직비디오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3명이 함께 촬영대본을 짜고 세트를 설치부터 영상 촬영에 편집까지 1인 다 역의 강행군으로 서로가 날카로워지는 상황이 닥쳤는데 편집 점 때문에 의견충돌이 일어나게 된 상황에서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절충안을 내놓아 그 상황을 넘길 수 있었고 2박 3일 밤을 새우면서 편집하고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사회생활

평소 사진 찍는 것이 취미인데 KT&G 상상마당에서 하는 사진 출사에 지원한 것이 당첨되어 남이섬으로 출사하러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문모델을 촬영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전문가들의 조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이마트에서 POP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격 고지 출력물을 작업하고 세일즈를 위한 마케팅 진행과 관련된 행사, 이벤트, 포스터, 현수막 등 다양한 광고 저작물을 만들기도 하였고 바둑협회 창원지부에서 일하는 동안 사무업무와 바둑대회가 진행되면 광고물과 굿즈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신문사 인터넷 팀에 계약직 근무를 하게 되면서 선거철을 맞아 후보들 배너광고 작업을 맡게 되었고 웹사이트에 배너들을 올리면서 HTML/CSS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간단히 링크를 거는 수준이었지만 내가 만든 저작물이 웹 화면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웹디자인 수업을 배우면서 HTML/CSS, jQuery를 통해 화면의 각종 UI를 구현할 수 있었고 웹사이트 프로젝트를 제작하면서 트렌드에 맞추어 화면을 큼직큼직하게 만들다 보니 허전해 보였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CSS 애니메이션에 대해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키 프레임일 일일이 하드 코딩으로 제어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지만, 버튼이나 정지이미지에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부여해서 UI의 활용성도 높이고 디자인의 풍부함을 느낄 수 있었기에 즐겁게 몰입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포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눈에 잘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배치와 콘셉트와 어울리는 색과 폰트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레퍼런스 선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웹사이트는 여러 가지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작업하기 때문에 이들을 일관성 있게 조정한다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고 조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작하려는 것들을 어떻게 시각화할지에 대해 관련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고민하고 더 나은 저작물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